

# landscape architecture korea

환경과조경

# 328

2015. 08.

나의 설계 스튜디오 교육  
설계 교육의 내일을 고민하다  
세운상가 공공공간 설계 국제공모  
높은 근대성과 도시 공공성의 스펙터클



# ORIK

# 뉴 테살로니키 워터프론트

New Waterfront of Thessaloniki

Nikiforidis-Cuomo Architects

글 Nikiforidis-Cuomo Architects

**Design** Nikiforidis-Cuomo Architects  
**Urban / Architectural Study** Prodromos Nikiforidis, Bernard Cuomo, Atelier R.Castro - S.Denisof  
**Structural Study** Iakovos Lavasas, Maria Stefanouri  
**Electromechanical Study** Dimitris Bozis, Panagiotis Kikidis and collaborators E.P.E., Gerasimos Kampitsis  
**Phytotechnical Study** Iloriki E.E. - Fotis Fasoulas  
**Geotechnical Study** Evaggelos Vasilikos  
**Supervision of the Studies** Konstantinos Belibasakis, Maria Zourna, Katerina Bletska, Eleni Fountoulidou, Sevasti Laffsidou, Dimitris Katirtzoglou, Dimitris Sofiriadis  
**Supervision of the Construction** Andreas Spiliopoulos, Dimitris Tzioras, Nikolaos Mourouzidis, Ioanna Karagianni, Spiridoula Paraskeva  
**Client** Municipality of Thessaloniki  
**Location** Thessaloniki, Greece  
**Area** 238,800m<sup>2</sup>  
**Completion** 2014  
**Photographs** Aris Evdos, Bernard Cuomo, Erieta Attali, Giorgis Gerlympos, Prodromos Nikiforidis, Teo Karanikas, Tsouts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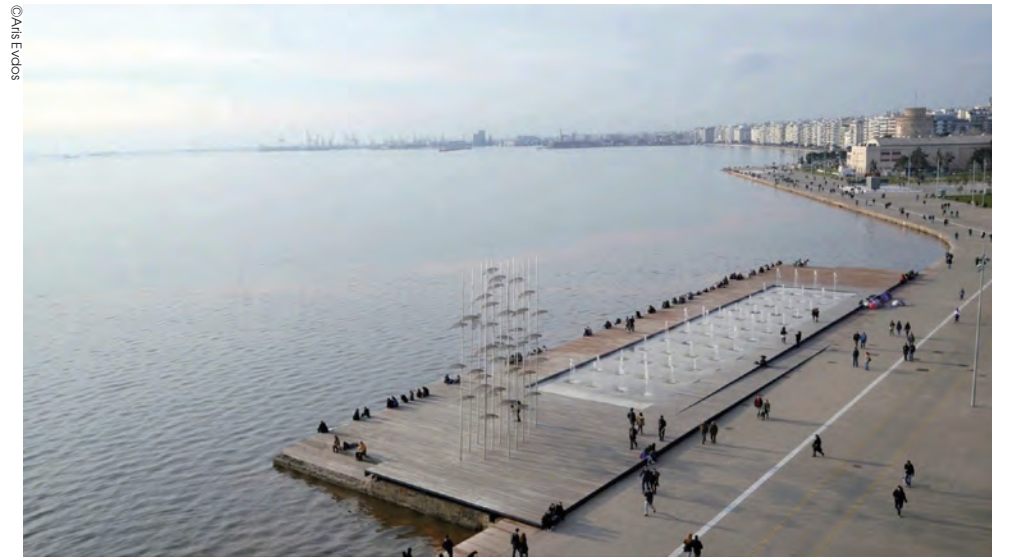
니키포리디스-쿠오모 아키텍츠(Nikiforidis-Cuomo Architects)는 프로드로모스 니키포리디스(Prodromos Nikiforidis)와 베르나르드 쿠오모(Bernard Cuomo)가 1991년 설립한 건축설계사무소다. 그리스 테살로니키(Thessaloniki)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대표적으로 메네메니 문화 센터와 극장(the Cultural Center and Theatre in Menemeni), 필레아 테크노폴리스 빌딩(the Technopolis Building in Pylea), 뉴 테살로니키 워터프론트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09년 그리스 건축 협회(the Greek Institute of Architecture) 건축상, 2013년 아테네 재개발 사업 공모전(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Re-Think Athens") 당선, 2015년 모네μβ라지아-니아폴리 해안가 재개발 사업(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for the Redevelopment of the Littoral Zone of Neapoli in Monemvasia) 당선 등이 있다.





©Prodomos Nikiforidis

게오르기오스 조골로푸올로스의 조각



©Aris Evdosis

테살로니키Thessaloniki는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 주의 항만 도시다. 테살로니키 워터프런트는 에게 해를 향해 펼쳐진 3.5km 길이의 해변을 따라 조성된 선형의 공공 공간이다. 2000년에 이르러 테살로니키 시 당국은 기존 테살로니키 워터프런트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제 건축 공모전International

Architectural Competition for the Redevelopment of the New Waterfront of the City을 실시했다. 뉴 테살로니키 워터프런트는 총 두 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첫 번째 구역(약 75,800m<sup>2</sup>)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2011년에 착공된 두 번째 구역(약 163,000m<sup>2</sup>)은 2014년에 완성되었다.

총 238,800m<sup>2</sup>의 면적으로 이루어진 뉴 테살로니키 워터프런트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라는 독특한 자연 및 사회문화적 생태계의 다양한 쉼을 받아들여 3.5km 길이의 산책로와 열세 곳의 녹지 공간 속에 풀어냈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목표는 바다와 도시의 경계 지역의 생태계를 되살리고 해변을 따라 연속성과 통일성을 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만드는 데에 있다. 화이트 타워(북쪽 끝)부터 콘서트 홀(남쪽 끝)까지 이어지는 해변 길은 경사나 레벨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도록 처리되었다. 또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주기 위해 일정한 폭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경질 포장 처리가 필요한 모든 곳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만을 사용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 부분(해변 길)보다 높은 레벨에 조성된 산책로는 일련의 정원을 따라 외부의 방해받지 않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다. 해변 길과 바다의 경계에 놓인 방파제의 끝부분에는 방킬라이(bangkalai) 소재의 목재 데크가 조성되어 있다. 산책로의 식재 공간 사이사이에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구역은 해안가의 상이한 두 영역인 보도와 녹지 사이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뉴 테살로니키 워터프런트는 푸른 바다와 그 뒤로 보이는 올림푸스 산만으로도 훌륭한 경관을 만들어낸다.

©Bernard Cuomo



©Prodimos Nikifori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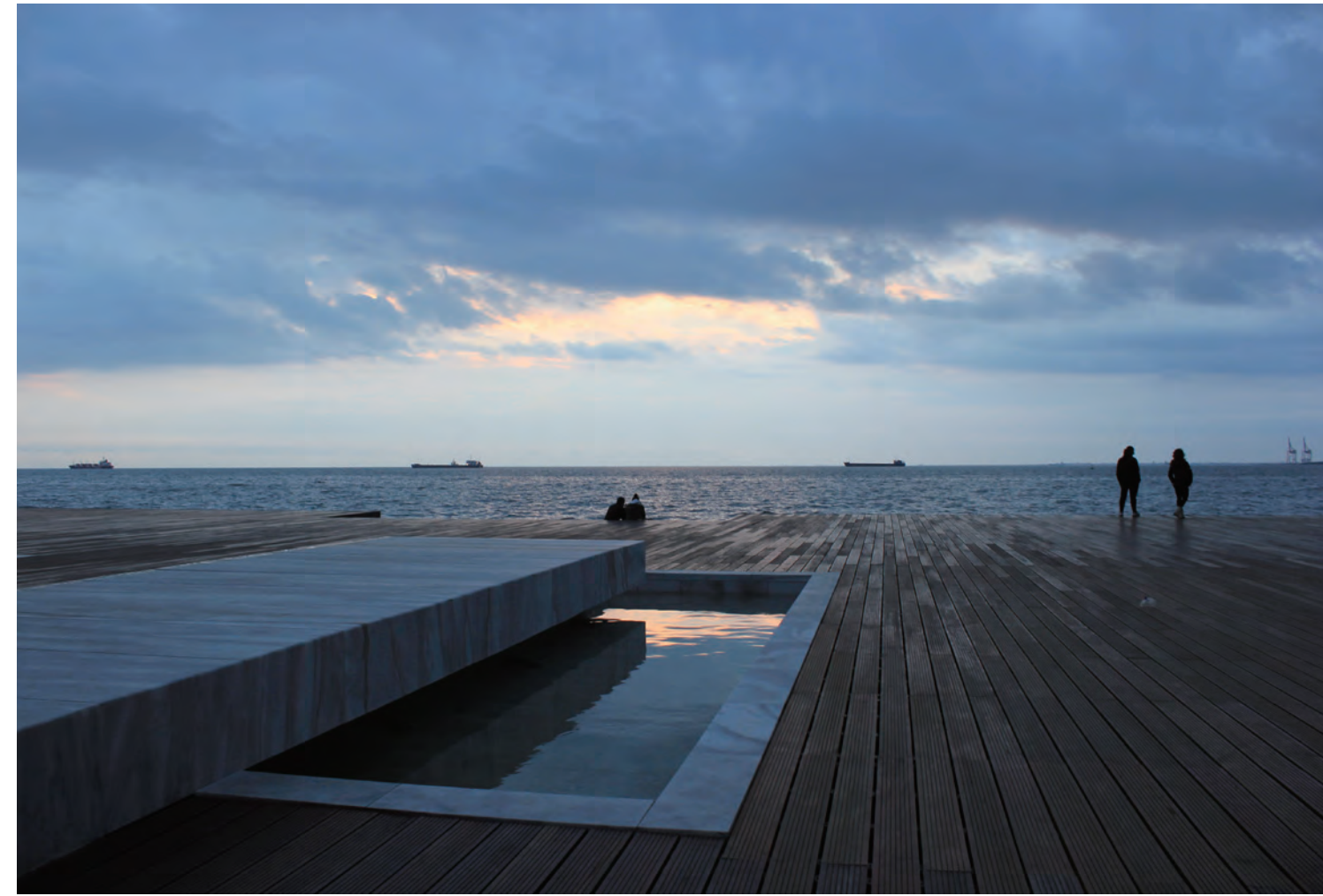
계절의 정원

봄이면 많은 사람들이 계절의 정원에 피는 꽃을 찾아온다.



©Prodimos Nikiforidis

오후의 태양 정원과 모래 정원 사이에 자리한 대리석 수조와 목재 데크



©Prodimos Nikiforidis

오후의 태양 정원



©Bernard Cuomo



오후의 태양 정원과 모래 정원 사이에 자리한 목재 데크.  
바다와 해안선의 경계에 놓여 있어 물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오디세아스 포카스 정원과 지중해 정원

©Mia Evdosis



©Prodromos Nikiforidis

소리 정원 내부.  
자갈 길 위를 걸을 때 나는 소리뿐만 아니라,  
구조물이 바닷바람을 받아낼 때 발생하는 소리를 활용했다.

조각 정원에 조성된 수 공간과 파빌리온



©Geo Konarikis

조각 정원 내 수 공간



©Bernard Quomo



©Bernard Quomo

해변 길의 동쪽으로는 열세 곳의 녹지 공간이 일련의 연속적인 정원을 형성하고 있다. 모든 정원은 각기 다른 주제에 따라 독특한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뉴 테살로니키 워터프런트는 커다란 하나의 '공원'이라기보다 다수의 작은 '방'이 연속된 것에 가까우며, 이는 해변이 현재와 같이 매립되기 이전에 시내에서 자연 해안까지 이어져 있던 주택 정원을 연상시킨다. 이 정원들은 다양한 조형 요소로 공간을 에워싸며 각각 독립된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킨다. 나아가 차별화와 시각적 고립 가능성, 그늘, 놀람, 발견과 드러냄, 놀이, 부드러운 노면, 녹지 등 각기 다른 개념을 적용하여 차이를 두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사적이며 친밀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통일된 설계 언어를 담아내고자 했으며, 지역적인 스케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집산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소리 정원



©Prodromos Nikiforidis



©Elohis Gertmanos

수생 식물과 관련 생태계를 만나볼 수 있는 물의 정원



www.raumhaus.co.kr

Bicycle

**RAUMHAUS\***  
 ENVIRONMENT & PUBLIC DESIGN CLUSTER **raumhaus**

“자연과 공간에 선을 더하다”



www.raumhaus.co.kr  
 라움하우스 |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21 통광빌딩6층  
 T. 02. 334. 0426 F. 02. 334. 0427 E. raumhaus@naver.com

이렇게 다양한 요소와 공간 조성 방식을 활용하여 보다 새로운 풍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잘 정비되고, 흥미진진하고 현대적이며,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공간 활용도가 높은 복합적 공공 공간과 독특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공간의 다양성과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와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선형의 공간을 면적으로 확장

시키고자 했다. 즉 워터프런트의 영향력을 인근 주택까지 더욱 확장하여 일상 속의 새로운 취미를 이끌어내는 촉매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뉴 테살로니키 워터프런트의 모든 공간은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단순한 개방을 넘어 다양한 편의 및 무장애 시설—경사로와 표지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스케일의 운동장, 자전거 길, 시각장애인 용의 특별 산책로 등—을 배치하여 이용

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뉴 테살로니키 워터프런트는 매우 다양한 공간 성격과 특징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이 모든 다채로운 면들이 공존하며 조화로운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진행 양다빈 번역 우영선 디자인 펍션민



©Elohis Gertmanos

장미 정원